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조선시대 ‘의기(義妓)’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정 지 영*

논개와 계월향은 16세기 임진왜란 때 적장을 죽인 기생으로 기억된다. 논개는 진주 성 전투가 패한 뒤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하고, 계월향은 왜장의 사랑을 받았지만 김응서를 도와 왜장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다. 전쟁이 끝난 뒤, 진주지역에서 흐릿하게 떠돌던 논개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후기에 ‘나라를 위해 죽은 의기 논개’의 기억으로 만들어졌다. 반면, 평양의 계월향은 국가로부터 ‘의기’로 호명되지 못했다. 계월향과 논개는 전쟁 속에서 적장을 죽인 기생이지만, 그녀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간극은 ‘적과의 내통’ 가능성 여부에서 비롯되었다. 기억의 직조과정에서 내통의 혐의를 벗은 ‘논개’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여성의 역할 모델로 작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400여 년 전, 전쟁 속에 죽은 기생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공식기억과 그 기억의 직조 과정, 그 공식기억의 너머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갈래의 음습한 기억들을 드러낸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억’을 다시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확고한 것으로 여겨진 것을 뒤흔들고, 기생과 ‘충(忠)’의 기묘한 결합을 해체하여 남성의 시선에 포박되지 않은 그녀들에 대한 다른 상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이다.

주제어: 논개, 계월향, 조선후기, 전쟁, 섹슈얼리티, 공식기억, 집단기억, 파편적 기억, 적과의 내통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I. 머리말

‘논개와 계월향’은 임진왜란 때 왜장을 죽인 기생으로 한국의 ‘집단기억’¹⁾ 속에 자리하고 있다. 나라 위해 죽은 그녀들에 대한 기억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인식되고, 그 자체가 도전할 수 없는 어떤 단단한, 객관적 실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과거 속에서 퍼 올린 기억들은 그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한 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²⁾ 이 글은 그 기억이 만들어진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그 기억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기억이 활용된 방식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곧 조선시대 기생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회의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 그리고 그 기억은 한 사회의 젠더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며,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배제했는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³⁾

-
- 1) ‘집단기억’에 대한 이론가로는 기억의 구성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모리스 알박스가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집단기억’은 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을 여타의 집단과 구별지우는 특수한 정체성을 제공한다. 그것은 집단 내의 모든 차이를 평준화하고 변화를 은폐하는 ‘전통’으로 기능한다. 집단기억이 전통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개개 구성원들의 기억은 그 틀 안으로 통합된다(전진성, 2005, pp.48-49; 김영범, 1999).
 - 2) 역사학의 객관주의를 비판하고 기억을 역사학의 주요 문제로 가져온 데는 피에르 노라의 작업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해서 Pierre Nora(1989) 참조. 그밖에 기억, 현실, 일상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Harry Harootunian(2000)을 참조할 수 있다.
 - 3) ‘논개와 계월향’이 본격적으로 한국 대중문화 속에 알려진 것은 1954년 박종화가 소설 『임진왜란』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 박종화는 1962년에 『논개와 계월향』(삼중당)을 단행본으로 출판했는데,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 중에서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묶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에 한국전쟁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개의 기억이 활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정지영, 2006).

임진왜란이 끝난 뒤 17세기 초 진주지역에서 흐릿하게 떠돌던 논개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선후기에 ‘나라를 위해 죽은 의기 논개’의 기억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근대 이후, 민족주의자 남성들은 논개를 그들의 ‘애인’으로 전유했고, 그 사랑을 시로 읊었다.⁴⁾ 그 시는 20세기 후반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라 위해 죽은 논개’에 대한 ‘국민의 기억’을 생산하는 데 기여했다.⁵⁾ 논개는 임진왜란 때 남강에 몸을 던졌지만, 그 기억은 죽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지역의 인물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노력들에 의하여 논개의 생가가 복원되었고, 부모와 자손이 밝혀졌으며, 마침내 무덤까지 찾아지게 되었다.⁶⁾ 2007년 7월 김별아는 장편소설 『논개』를 발표했고, 그 책은 “논개, 충절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죽었다”⁷⁾는 기사 제목으로 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중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논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편에서는 ‘충’의 상징으로, 또 한편에서는 ‘사랑’의

-
- 4) 변영로, 〈논개〉, 『조선의 마음』(평문관, 1924), 한용운,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 『님의 침묵』(회동서관, 1926).
 - 5) 코우노 켄스케(紅野謙介)는 ‘국어’교과서의 교육 내용이 내셔널 히스토리에 대한 무의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범한 ‘국민’적 기반을 가진 교과로 ‘국어’를 능가하는 것이 없으며, 국어 교과서를 검증할 때, 우리의 사고나 감성의 미세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는 내셔널리티를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다(코우노 켄스케, 1999: 45).
 - 6) 논개의 출생지로 알려진 장수군(전라북도)과 논개의 사망지인 진주시(경상남도)에서 논개의 기념사업이 활발하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 “진주시 논개 사이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진주의 특산물을 “논개특산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7) 최재봉 기자, <한겨레> 2007년 7월 4일 기사. 책 소개를 위한 인터뷰에서 김별아는 “논개는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료가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부족한 사료에서마저 크게 오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논개를 두고 충성과 절개를 말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논개의 짧은 생애를 되살려 보고자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상징으로 소환되어 기생의 ‘열/충’이 얼마나 절절했는가를 전하고 있다. 논개의 죽음은 시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논개는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임진왜란 때 못 다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평양의 기생 계월향의 이야기는 논개 이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었다. 조선후기에 계월향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의기(義妓)가 되지 못했다. 조선후기뿐 아니라 근대 이후의 한국사회에서도 계월향보다는 논개가 뚜렷이 부각되었다. 논개가 공식담론의 장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일본 장군을 죽인, 충의와 애국의 구현자로 주인공이 되어 등장하는 것과 달리 계월향은 그 언저리에서 조연배우의 역할만을 담당했다.⁸⁾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차별’은 그에 대한 연구물에서도 드러난다. 논개의 경우, 그녀가 기생인가 최경회의 첩인가⁹⁾, 논개의 출신이 어디인가 등 논개를 둘러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오병무, 1997; 정동주, 1997; 진주문화원; 2000). 또, 논개가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수업, 2001).¹⁰⁾ 논개에 관한 설화가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최관, 2003; 박기용, 2004).¹¹⁾

8) 이와 관련해서는 계월향이 평양(북한), 논개가 진주(남한)의 기생이었다는 것도 작용했을 수 있다.

9) 『두산세계대백과』에는 “성은 주씨(朱氏)이고, 본관은 신안(新安:중국)이며, 전북 장수(長水)에서 태어났다.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겹쳐 가산을 탕진하자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최경회(崔慶會)의 후처가 되었다고 전한다. 그 밖의 자세한 성장과정은 알 수가 없다.”라는 설명으로 논개를 소개하고 있다.

10) 김수업은 2001년도에 펴낸 저서 『논개』에서 논개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논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정리하여, 이 글의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진주시논개사이버박물관 (<http://www.jinjunongae.com/>) 에도 논개에 대한 문헌자료를 정리해두었는데 대개가 김수업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1) 최관(2003) 역시, “조선의 기생과 일본의 호걸”이라는 제목 아래 논개와 일본 장

하지만 계월향에 대해서는 『임진록』~죽의 계월향 이야기의 변이 또는 일본 소설 속의 계월향 이야기를 다룬 것이 전부이다(임철호, 1986; 최관, 2003)¹²⁾.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연구물을 보면, 논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행적을 발굴하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논개를 신성하게 기억하기 위한 증거 찾기 작업들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곧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속에서 기생이 과연 어떻게 죽었는가, 전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이고 허구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녀들에 대한 ‘사실’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증명’의 노력은 그녀들에 대해 아무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역설적 사실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녀들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사실은 그녀들에 대한 어떤 ‘기억’이 뚜렷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논개와 계월향을 ‘기억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녀들의 삶, 죽음보다 더욱 현실적일 수 있는 것이 그녀들을 둘러싼 기억이다. 논개와 계월향은 임진왜란 때 죽었지만, 그녀들의 삶과 죽음은 ‘기억’을 통해 현재로 이어진다. 그녀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 자체가 그 기억이 일어나고 유지되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녀들은 고정된 형태로 객관적으로 저기 어딘가, 과거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아닌 현재의 시선 속에 끊임 없이 다시 소환되고 다시 논의되는 기억의 대상이다.

이 글에서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기생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의 기억으로 정리되어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공식기억’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부스러기를 제거한 깔끔한 공식기억으로 탄생할 때 떨어져 나간 부스러기는 무엇이며, 그 파편적 기억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

수와의 관계 등이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12) 최관은 저서 『일본과 임진왜란』(2003)에서 일본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에 등장하는 계월향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13) 최근에는 논개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연구들(한규무, 2005)이 진행되었다.

엇인가. 어떤 것이 덩어리로 남고, 어떤 것이 부서지게 되었는가. 그 공식 기억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모습을 미묘하게나마 바뀌었는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포섭과 배제의 정치학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 글에서는 특히 조선후기,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천한 ‘관기’인 논개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여성의 상징이 되기까지 그녀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진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선시대 국가와 여성의 관계, 국가에 대한 ‘충’과 젠더 관계의 지형에 일어난 변화를 읽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지배적 규범에 알맞게 재편된 논개 이야기와 다른 ‘흠어진 기억들’, 논개와 달리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기생으로 깨끗하게 추앙받을 수는 없었던, 계월향 이야기의 파편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기억’을 다시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확고한 것’으로 여겨진 것을 뒤흔들고, 기생과 ‘충’의 기묘한 결합을 해체하고, 욕망어린 남성의 시선에 포박되지 않은 그녀들에 대한 다른 상상을 만들어내고자 한다.¹⁴⁾

II.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이야기

논개와 계월향의 임진왜란 때의 행적 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국가의 공식 기록 속에 전혀 전하지 않는다. 논개의 사연은 『어우야담(於于野談)』에, 계월향의 이야기는 『평양지(平壤志)』에 실린 것으로 전해진다. 『어우야담』과 『평양지』의 기록은 모두 진주, 평양 등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조선시대의 기록이고 또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라는 이

14)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말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할 수 있다. 역사를 말하는 것은 말한다고 하는 행위에 의해, 몸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이나 정동(情動)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그 역사가 끌어당긴 정동은 또 다시 역사 내부, 우리 자신 내부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하게 만든다(도미야마 이치로, 2006: vi).

유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원형을 전달해준다고 믿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최초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버전으로 변형되고 덧붙여지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유용할 수 있다.

먼저 논개 이야기를 보자.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 만력 계사년에 김천일이 거느린 의병이 진주성에 들어가 왜적에 맞서 싸웠다. 마침내 성이 짓밟히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얼굴과 매무새를 아리답게 꾸미고 축석루 아래 우뚝한 바위 위에 서 있었으니, 바위 밑은 바로 깊은 강물 가운데로 떨어지는 곳이었다. 여러 왜병들이 바라보고 좋아했지만 모두들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했는데, 한 장수가 홀로 나서서 다가왔다. 논개가 웃으면서 맞이하니 왜장도 그를 꺾면서 끌어당겼다. 이때 논개는 드디어 왜장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¹⁵⁾

다음으로 계월향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계월향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다. 평양성에서 조선군이 왜병에게 밀리는 상황이었었는데 조선의 김응서¹⁶⁾가 적장을 죽이고 돌아와서 왜적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가 적장을 죽이는 데는 계월향이라는 평양 기생의 도움이 있었다. 그 사연을 『평양지』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이 때 행장의 부장(副將)에 용력이 절등한 사람이 있으니 언제나 앞장서서 진을 함락시켜 행장이 소중히 여기고 일을 맡겼다. 평양 기생 계월향(桂月香)이 그에게 잡혀 있었는데 지극히 사랑을 받아,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서쪽 문에 가서 친척을 보고 오겠다고 하니 왜장이 허락하였다. 계월향이 성 위에 올라, ‘우리 오빠 어디 있소.’ 하고 연거푸 슬

15) 유몽인, 『어우야담』(1621년) 인륜 효열.

16) 김응서(金應瑞, 1564~1624)는 김경서(金景瑞)와 동일 인물이다. 임진왜란 때 평안 도방어사를 지냈다고 알려져 있다.

피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김응서가 답하고 가니 계월향의 말이, ‘만약 나를 탈출하게 해준다면 죽음으로 은혜를 갚겠소.’ 하니 응서가 허락하고 계월향의 친오빠라 자칭하고 성에 들어갔다. 밤중에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계월향이 응서를 인도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가니 왜장이 걸상에 앉아서 자는데 두 눈을 부릅뜬 채 쌍검(雙劍)을 쥐고 얼굴을 벌겋게 해가지고 마치 사람을 내리칠 것 같았다. 응서가 칼을 빼어 왜장을 베니 머리는 벌써 땅에 떨어졌는데도 칼을 던져 하나는 벽에 꽂히고 하나는 기둥에 꽂혀 칼날이 반이나 들어갔다. 응서가 왜장의 머리를 가지고 문을 뛰쳐나오니 계월향이 뒤를 따랐다. 응서가 둘 다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칼을 휘둘러 (계월향을) 베고 한 몸으로 성을 넘어왔다. 이튿날 새벽에 적이 그 장수의 죽음을 알고 크게 놀라 소란을 피우며 사기를 잃었다.”¹⁷⁾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계월향은 왜장에게 본의 아니게 잡혀 있으므로 도망치려는 의도에서 김응서를 성안으로 끌어들었다. 계월향은 김응서를 도우면서, 김응서에게 그녀가 왜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계월향과 김응서는 이러한 조건에 따라 공모하는 관계였지만, 김응서는 계월향을 데리고 가다가 자칫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를 죽이고 혼자서 귀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진주와 평양 지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다가 17세기에 문헌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조선후기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각색되었다.¹⁸⁾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는 국가 또는 지역의 양반들의 공인 속에 ‘공식기억’으로 정돈되었다. 그렇게 정돈되지 못한 기억들은 조선후기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흩어졌고, 미묘하게 달라지는 기억의 흔적은 전쟁, 죽음, 기생의 섹

17) 『평양지』의 기록을 인용한 이 이야기는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제15권에 기록되어 있다. 『연려실기술』은 이극익(李克翼:1736~1806)이 조선시대 여러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던 야사(野史)를 수집, 분류하여 저술한 책이다.

18)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임진록』의 여러 이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슈얼리티, 그리고 새로운 조선의 건설과 그에 대한 욕망을 위해 어떤 기억을 만들고 또 삭제해야 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억의 직조 과정에서 논개와 계월향은 미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었다. 그녀들은 모두 전쟁 중에 왜장을 죽인 기녀이지만, 그 행적과 죽음의 속사정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그 다름은 다음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논개는 스스로 빠져 죽었지만 계월향은 그녀가 도움을 준 김응서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둘째,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을 뿐 적장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는 않았다. 하지만 계월향은 적장에게 잡혀 그의 사랑을 받은 왜적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미묘한 것이지만, 그 작은 차이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그녀들을 기억하는 방식에 어떤 큰 간극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III. ‘의기(義妓)’로 탄생한 논개와 기녀의 ‘충(忠)’

1. 의기 논개의 기념비와 기억의 생산과정

논개는 조선후기에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후원받는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가 지정한 ‘의기’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뒤, 1617년(광해군 9) 3월에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논개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논개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기록에 남긴 『어우야담』(1621년)의 저자 유몽인은 논개 이야기를 소개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임진왜란 때에 관기로서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논개 한 사람뿐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거의 잃어버렸다. 저들 관기는 음탕한 창녀들이라 ‘정열(貞烈)’로 일컬을 수가 없었지만 죽는 것을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또

한 거룩한 임금의 교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의 하나가 아닌가? 차마 나라를 저버리면서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¹⁹⁾

유몽인은 논개가 『동국신속삼강행실도』²⁰⁾에 기록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위와 같은 주장을 덧붙였다고 한다. 논개는 ‘음탕한’ 관기(官妓)였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열(烈)’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최진한은 1721년(경종 1)에 비변사에 논개의 이야기를 전하며 국가에서 그녀를 포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비변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녀가 전란에서 제 몸을 버려 도적과 함께 죽은 것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같다면 포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사실을 증명할 문헌을 가지고 밝힐 수가 없으니 아름다움을 기리고 무거운 상을 내리는 일을 가볍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만약 근거할 만한 기록이 있으면 우병영에서 의논하여 비변사로 보내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다.”²¹⁾

논개가 ‘도적’[왜]과 함께 죽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명암 정식은 축석루 아래 바위에 논개 설화를 앞에 적고 비명을 지어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문집 『명암집』에 기록해 두었다.²²⁾ 조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자 진주의 양반들은 바위에 논개 이야기를 새겨 넣음으로써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논개의 자손을 찾아 부역을 면제시켜주고 특별한 은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논개를 ‘의기’라고 호명하였다. 이후 1740년(영조 16)에 경상우병사 남덕하는 다시 논개 문제로 조정에 장계를 올려 마침

19) 유몽인, 『어우야담』(1621년) 인륜 효열.

20)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대한 개괄적 연구로는 박주(1992), 김혁(2001) 등 참조.

21) 『비변사등록』 7집, 경종2년 5월.

22) 정식, 『명암집(明庵集)』 권6, 부록(附錄) 가정(家狀).

내 의기 사당을 세우라는 임금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²³⁾ 기녀에게 국가에서 사당을 짓도록 하고 제사를 올리도록 한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조 후반부터 광해군, 인조, 숙종, 영조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세력들의 관계가 달라진 것과도 연관된다. 선조는 관군 출신의 장수를 중심으로 공신 녹훈을 하고자 했고 의병활동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 반면, 광해군대에 지방의 의병 활동이 중요하게 평가받게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의 의병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에 서인 및 남인계 사림들은 전공 자체를 내세우는 대신 의리명분론을 강화하고 절의와 충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²⁴⁾ 진주 지역의 사민들이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의암(義巖)”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것도 이러한 절의와 충렬을 강조하는 경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세 변화에 맞춰 논개를 ‘의기’로 만들어낸 것은 진주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논개를 의기로 만들고자 한 진주 사람들은 누구인가? 『명암집』에 따르면 “진주 사민(士民)”이라고 되어 있다.²⁵⁾ 곧 진주의 양반, 진주 지역의 엘리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친한 기녀를 ‘의기’로 만들고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진주성 전투에서 패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따르면 그가 논개의 비명을 지어 새긴 것은 진주 ‘사민(士民)’의 열망에 부응한 것이었다고 되어 있다.

23) 안숙, 「충민창열양사조향절목(忠愍彰烈兩祠助享節目)」. (김수업, 2001; 70-71쪽 재인용).

24) 이와 관련하여 노영구는 선조 후반기에서 인조, 숙종대 이후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관군 또는 명나라의 지원군 중심으로 평가하던 것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방 의병, 하급 군사, 전공을 세운 노비와 천민에 대한 평가로 달라졌음을 밝힌 바 있다(노영구, 2004).

25) 논개의 비명을 지어 새긴 것은 진주 ‘사민’의 열망에 부응한 것이었다고 되어 있다(『명암집』 <의암사적비명>).

진주성 전투에서 패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박태무는 『의기전』에서 “도적이 승승장구하던 마침 그때에 맞추어 괴수를 죽임으로써 다치고 지쳐 땅에 떨어진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떨치게 만들었다. 실낱같은 한 몸을 바쳐 남방 수백 년의 기틀을 회복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찍이 지난날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가 아닌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요컨대 논개는 진주성 전투에서 패한 오점을 씻고 진주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낱같은 단서였던 것이다.

이러한 명예 회복은 진주성 안에 내부 분열이 있었다는 소문 때문에 더욱 절박한 것이었다. 18세기 후반,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 <진주의 기사기(晉州義妓祠記)>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성이 함락되려고 할 때 이웃 고을에서는 병사를 풀어 구원해주지 않고, 조정에서는 공로를 시기하여 패배를 기뻐할 정도였다. 견고한 성지를 적의 손에 떨어뜨려 충신과 지사의 분노와 한탄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는데, 보잘 것 없는 한 여자가 적의 대장을 죽여서 나라에 보답하였으니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환히 하늘과 땅 사이에 빛난다.²⁶⁾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진주성이 함락될 당시 진주성 주변의 고을에서 도와주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시기하여 패배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잘 것 없는 한 여자, 곧 논개가 적의 대장을 죽여서 나라에 보답한 것으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논개의 죽음이 빛나는 것은 진주성 패배 당시 소위 ‘신하’들 사이의 분열과 의리 없음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분열과 그에 따른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진주 사람들, 또 그 싸움에 관련되었던 남성 장군들의 오점을 덮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논개였다. 왜장을 안고 죽은 의기 논개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주체는 진주의 양반 남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논개를 지역의 기억으로 기념하는

26) 정약용, 『여유당전서』 지문집 권13.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공식적 인정을 받는 ‘국가의 진주 의기 논개’를 만들기 위한 기억투쟁을 한 셈이었다.

이렇듯 진주의 명예를 드러낼 논개가 진주 사민에 의해 적극적으로 발굴되는 한편에서는 진주의 ‘기녀’들이 논개를 기념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1651년에 오두인은 논개가 죽은 바위 앞에서 진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말을 듣고 <의암기>를 기록했는데 이에 따르면, “논개의 절의에 대하여 봄가을로 제사를 바치는데, 관청의 기녀들이 맡아서 드린다고 들었다”²⁷⁾고 되어 있다. 제사를 맡아서 진행한 것은 다름 아닌 진주의 기생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양반들의 관심이 기녀들의 기억 행위를 촉발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기녀들의 기억 행위에 의해 양반들이 ‘논개’에 주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진주 지역의 사민들이 논개를 의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논개를 의기로 기억하고 기념해 온 진주의 기생들의 행위는 하나의 동인(動因)이 되었다. 국가에 호소한 것은 논개를 통해 진주성 패배의 불명예를 만회하려는 양반 남성들이었지만, 그것은 오래 동안 이루어진 기생들의 제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어쩌면 진주의 기녀들은 진주 관아에 새로 부임한 관리들에게 은근하게 논개를 의기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논개가 의기로 만들어지면서, 진주 기생의 명성도 높아지게 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논개가 의기로 만들어진 중요한 추동력은 논개를 기억하며 제사를 지낸 진주의 기생들이었던 것이다.

2. 새로운 ‘충’의 창출

그렇다면 논개에 대한 조정의 평가는 왜 18세기 이후 달라졌는가. 단순하게, 18세기로 가면서 논개에 대한 증거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증거들이 만들어졌을 뿐, 그것이 사실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끝난

27) 유광익, 『풍암집화』(1713-1780년)

뒤, 국가 질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회에서 ‘충/열’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앞에서 인용했던 유몽인의 논평을 다시 살펴보자. “임진왜란 때에 관기로서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논개 한 사람 뿐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거의 잃어 버렸다. 저들 관기는 음탕한 창녀들이라 정열(貞烈)로 일컬을 수가 없다지만 죽는 것을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또한 거룩한 임금의 교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의 하나가 아닌가? 차마 나라를 저버리면서 왜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충(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²⁸⁾ 유몽인이 책에 논개이야기를 기록하던 1621년 이전의 상황에서 기녀 논개의 등장은 매우 새로운 현상이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주도로 편찬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그녀를 ‘열’ 또는 ‘충’ 어디에도 넣을 수 없었다.²⁹⁾

기녀 논개를 ‘열’을 행한 존재로 넣지 않은 데에는 여색을 가진 기녀는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기녀’는 누구를 위해서든 노래와 춤을 보여주고, 정을 나눌 수 있었다. 그것이 조선 남성뿐 아니라 왜의 남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음탕한 기녀는 그 존재 자체의 한계 때문에 ‘열’의 주체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도하여 편찬한 기록 속에서 기녀 논개는 배제되었다.

하지만 유몽인은 『어우야담』이라는 사적인 기록물을 만들면서, 그것을 ‘충’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는 것은 조선시대에 통상적으로 ‘열’의 범주로 묶이는 것이었다. 기녀이기 때문에 ‘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유몽인은 오히려 그것을 ‘충’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왜를 따르는 일은 곧 나라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왜를 따르지 않은 것 그 자체만으로 ‘충’일 수 있

28) 앞의 주 19) 참조.

29)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양인은 물론이고 사비, 첩, 관비 등 하층 여성들도 입전되어 있다. 논개가 기록에서 배제된 것은 하층신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생’이라는 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논개가 ‘열’의 항목 아래 기록되지 못한 1617년의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기록을 살펴보면, ‘효, 충, 열’의 순서로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다.³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충’과 ‘열’은 젠더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충’은 남성에게, ‘열’은 여성에게 할당되어 있다. 곧 여성에게 ‘열’은 곧 ‘충’인 것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기록된 사례를 보면, ‘충’은 적에게 굴복하지 않거나 적을 토벌한 경우에 해당된다. 노비의 경우, 왜적이 주인을 위협할 때 배신하지 않고 저항했을 때 ‘충’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충’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기록된 대부분의 사례는 남성들이다. 곧 남성은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적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것을 통해 ‘충’을 실현하는 주체였다. 이례적으로 ‘충’으로 구분된 항목 속에 여성이 들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여성은 사비(私婢: 천민 여성)이다. 그 ‘충’의 내용은 왜적에게 위협받는 주인을 위해 끝까지 항거한 것이었다. 곧 ‘충’의 의미는 백성이 나라를 배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노비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성의 ‘열’은 적의 위협에 항거하다 살해되거나 자살한 경우,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에 수절하며 삼년상(三年喪)을 지킨 경우였다.³¹⁾ 여성은 ‘열’의 주체인데, 그것은 수절을 하는 경우에만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나머지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발현된다. 곧 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항거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열’을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여성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고 남성과의 관계,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이었다. 여성은 적극적으로 ‘충’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남편을 배신하지 않는 것, 배신하지 않기 위해 죽는 것 곧 ‘열’을 행하는 것을 통해 ‘충’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었다.

30)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기재된 열녀는 모두 수절하며 시부모를 잘 모시거나, 남편을 대신해서 죽거나, 남편을 따라 죽거나, 절개를 기키기 위해 저항하다 살해되거나 스스로 죽는 경우이다.

31) ‘열’의 항목 아래 남성이 기록된 경우는 없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왜적과 여성이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남편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열’을 실천한 것이지만, 그 상대가 왜적이기에 그 행동은 곧 ‘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기록에서도 부녀의 ‘열’을 해치는 자가 ‘왜적’으로 설정되면서, 부녀의 ‘열’은 곧 “왜적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통해 비로소 여성의 ‘열’과 ‘충’이 결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임진왜란을 통해 여성의 ‘열’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에서 ‘충’과 겹쳐지게 되었다.

하지만 ‘열’과 ‘충’이 합쳐지는 것이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여성은 직접 적을 물리치는 존재가 아니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이 ‘열’을 실천했을 때 ‘열을 실천한 부녀’는 곧 ‘충을 실천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과 ‘충’이 동의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논개는 왜적에게 저항하다 살해되거나 그냥 자살한 것이 아니라 왜적과 함께 죽었다. 부녀는 ‘열’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충’을 실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논개의 죽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문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열’이 없는 ‘충’은 인정될 수 있는가? 여성이 ‘충’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열’의 주체가 될 수 없던 기녀 논개의 죽음을 통해 던져진 것이다.

‘의기’라는 표현은 이러한 문제가 던져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교 이념 속에서 여성은 “전제지의(專制之義)”가 없는 존재이다. 여성에게 ‘전제지의’가 없다는 논의는 『대대예기(大戴禮記)』³²⁾에 등장하는 다음 설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자이다. 전제지의가 없어 삼종(三從)의 도가 있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니 감히 스스로는 이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명령이 집안을 나가지 않으며 일은 음식을 마련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³²⁾

32) “婦人伏于人也，是故無專制之義。有三從之道，在家從父，適人從夫，夫死從子。無所敢自遂也，故令不出閨門，事在饋食之間而已矣。”(『大戴禮記』“本命解”)

곧 여성은 어떤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의(義)’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18세기 이후, ‘의기’ 논개를 통해, 여성은 스스로 ‘의’를 갖는 존재로 인정되었다.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동국신속삼강행실도』³³⁾ 속에 충/열로 기록된 어떤 여성도 직접 왜적을 죽인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논개의 경우 기녀의 신분(官婢)으로 왜적을 직접 죽인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오랜 논의의 과정을 통해 남편에 대한 ‘열’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또는 주인에 대한 ‘충’을 통해서가 아닌, 기녀가 국가에 대해 직접 ‘충’을 드러내는 존재로 새롭게 인정된 것이다.

결국 논개가 의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선후기,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충’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17세기에 유몽인은 논개의 행적이 ‘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녀의 행적은 ‘충’으로 인정되기는커녕 ‘열’로 인정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18세기의 기록에서 논개를 인정 여부를 논할 때 더 이상 그녀가 관기라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죽임이 사실인가가 중요해진 것이다. 그 의미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기만 하다면 관기일지라도 ‘의기’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중화질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명나라의 멸망 이후 사라진 의리명분론을 유지하기 위해 주자학적인 질서에 맞게 사회를 재조직 하고자 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³³⁾ 전쟁을 거친 조선후기 사회에서, 새로운 조선 국가를 건설하는 일은 양반

33) 명의 몰락과 청의 등장이 조선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Jahyun Kim Haboush(1999)의 연구를 참조. 이에 따르면 조선은 유교 문명 최후의 보루이며 최선의 방법을 모두 강구하여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감정이 속에 있었다. 당시 인조를 중심으로 한 조정의 세력들은 명이라는 문명국가를 조선이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가 당시의 조선 지배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만일, 명을 포기하고 청나라를 야만족, 오랑캐가 아닌 중원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개편을 용인하게 되는 것이고 곧 인조를 중심으로 한 지배 집단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었다.

엘리트 남성들의 ‘충’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임진, 병자호란 때 순절한 충신, 열사를 현창하는 사업을 통해 조선의 엘리트 양반뿐 아니라, 양인, 천인에게까지 ‘열’과 ‘충’의 명분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그녀를 ‘의기’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녀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그녀의 죽음, 특히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은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보인다. 1621년에 유몽인은 논개가 죽은 이유에 대해 “왜적을 만나 욕을 보지 않으려고” 라고 설명했다.³⁴⁾ 또 1651년에 오두인이 논개가 죽은 바위 앞에서 진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말을 듣고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맹세코 왜적과 함께 살 수 없다”³⁵⁾는 말로 요약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로 이후, 진주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의기’로 호명한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이유를 ‘국(國)’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1721년 최진한은 비변사에 올린 장계에서 논개를 설명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적을 죽일 수 있는 계책이 떠올라 고운 옷을 입고 강가 우뚝한 돌 위에 홀로 앉아 거문고를 켜고 노래를 불렀다.”고 표현하였다. 18세기에 기록된 박태무의 <의기전>에서도 논개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성이 무너져 다시 어찌 할 바가 없이 되자 논개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라 일이 이에 이르렀으나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나 헛되이 죽어서는 도움이 없는데 어찌 구덩이에 빠져 죽기를 고집하겠는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태무는 논개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사람의 윤리를 지키려고” 죽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박태무는 평소에 선비들이 충신과 열사가 되겠다고 자부했지만, 큰 일 앞에서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논개를 선비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시켰다.

이는 전쟁 이후 ‘나라’의 경계, ‘나라’의 외부를 인식하게 된 상황과도

34) 유몽인, 『어우야담』(1621년) 인문 효열.

35) 오두인(1651), 『의암기(義巖記)』.

관련된다. 이제 ‘왜’와 ‘청’이라는 두 ‘오랑캐’로부터 지켜내야 할 ‘조선’이라는 뚜렷한 나라의 경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조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각성으로 이어졌다. 나라 안의 사람들은 저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주체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논개가 ‘의기’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징표였다.

논개는 ‘관기’이기에 일반 ‘부녀’와 달리 ‘열’의 반열에 끼어 들 수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성들의 영역인 ‘충’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역설적 계기로 작용했다. 기녀와 부녀, 남성과 여성의 위계가 ‘열’과 ‘충’의 위계로 작동하던 상황 속에서 논개는 직접 나라에 ‘충’을 실천한 최초의 ‘기녀’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³⁶⁾

이러한 변화는 국가에서 천한 신분의 사람들까지 ‘열’과 ‘충’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남성에게 할당될 수 있었던 ‘충’과 ‘의’라는 가치를 낮은 신분의 ‘기녀’가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했다. 관기 논개가 의기 논개로 만들어진 것은 국가가 기녀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호명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것은 비록 국가가 그 ‘기녀’를 동원하고 소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에 규정된 ‘여자’의 영역과 규범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은 것이었다. 또 이것은 논개가 특정한 남성과 관련된 ‘부녀’가 아니라 한 남자에게 속하지 않은 ‘기녀’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천한 기녀였기에, ‘열’의 주체가 되지 못했지만, 천한 기녀였기에 ‘충’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기생을 ‘충’으로 호명하는 것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인정의 대가는 분명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철저한 충성과 죽음이다. 죽지 않는 충성은 불가능했다.

36) 19세기 이후, 한편의 기억에서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기녀가 아닌 최경희의 애첩으로 설정하고 최경희를 따라 죽은 것 곧 전형적인 ‘열녀’의 내용으로 채워 넣기도 한다(『호남절의록』).

IV. 계월향의 죽음과 논개의 행적을 둘러싼 음험한 기억들

1. 계월향의 미심쩍은 죽음

18세기에 논개는 ‘의기’로 재탄생하였지만, 여전히 조선시대의 맥락에서 여전히 깔끔하게 의리와 명분을 지킨 존재로 평가되기 어려운 면모를 갖고 있었다. 논개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열’의 항목 아래 기재된 그녀들처럼 희생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왜적일지라도 남성을 죽인 것이고, 그녀들의 행적은 조선의 규범적 ‘부녀’의 모습으로 권장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들이 직접 ‘왜장’과 접촉했다는 점은 미심쩍은 일이었다. 이러한 ‘미심쩍음’은 계월향에 대한 기억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계월향의 경우, 왜장의 총애를 받은 기녀인데 그 왜장을 배신하여 죽이기까지 했다. 논개를 의기로 칭하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단서를 다는 왕의 입장 속에는 어쩌면 단지 증거가 없기 때문만은 아닌 다른 의심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논개가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끝내 계월향이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장의 수청을 들었던” 기녀라는 것 때문이었다. 곧 훼손된 ‘열’이 ‘충’의 의미를 퇴색시켰던 것이다.

조선 국가로부터 의기로 인정된 논개와는 달리, 계월향은 국가의 공식적인 ‘의기’가 되지는 못했다.³⁷⁾ 논개를 의기로 만드는 과정은 ‘의심스러

37) 현재 규장각에는 <의열사의기계월향비문義烈祠義妓桂月香碑文>(규10233)이 남아 있는데, 계월향을 기리는 의열사 비문이다. 이에 따르면 1835년(헌종 1년)에 평양감사로 있던 정원용(鄭元容)이 진주에 갔을 때, 남강 강 언덕에 논개의 의열사가 있어 해마다 진주의 백성들이 제향을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뒤에 평안감사로 와서 늙은 기생 죽엽(竹葉)으로부터 의기 계월향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들추어 자세한 것을 살펴서 그의 공이 논개에 못지않고 지혜가 훌륭하였기에, 계월향이 김경서(金景瑞, 김응서)와 함께 왜장을 처치한 의거의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고, 사당과 비석을 건립하고 봄가을에 제사지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계월향은 평양감사에 의해 19세기에 이르러 지방 관리의 공식적 인정을 받게 된

움’과 ‘불온함’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계월향의 경우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계월향 이야기 속에는 좀 더 복잡한 사연들이 뒤섞여 있다. 계월향의 경우 ‘김응서의 애첩’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이는 마치 논개를 최경희의 첩으로 기억³⁸⁾하고 싶은 것과 같은 욕망을 보여줄 뿐이다. 계월향과 김응서의 관계는 분명치 않고, 분명한 것은 계월향이 왜장의 애첩이었다는 것뿐이다.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계월향과 김응서와의 관계, 왜장인 소섭을 죽이는 과정, 계월향이 죽게 되는 과정을 두고 다양한 사연들이 각축을 벌인다. 그렇게 엇갈리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녀가 문제적이라는 뜻이다.

먼저, 계월향과 김응서의 관계를 보자. 『평양지』의 기록에서 그녀는 단순히 왜장의 사랑을 받아 왜장에게 잡혀 있는 신세로 되어 있을 뿐 김응서와 연결된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계월향은 김응서와 일종의 계약적 공모관계일 뿐이다. 자신은 김응서를 도와서 왜장을 죽게 하고, 김응서는 자신이 왜적의 거처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뒤에 만들어진 『임진록』³⁹⁾류의 역사소설 속에서 그녀는 김응서의 애첩으로 설정된다(임철호, 1986: 56-59).⁴⁰⁾

또 왜장인 소섭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 어떤 이야기에서 김응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면, 계월향의 계책으로 일이 성공하는 것으로

것이다. 이는 1800년대 초반까지 계월향에 대한 기억은 평양지역의 기억으로만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38) 『호남절의록』 卷一下, 33면 참조. 19세기 말의 『호남절의록』에서는 논개를 최경희의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39) 『임진록』은 40여종의 이본이 발견된 고전소설로서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까지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과 소재로 한 역사소설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철호(1985)의 연구를 참조.

40) 한국사회에서 유통되는 기억 속에서도 계월향은 김응서의 애첩으로 설명된다. 『두산백과사전』에서 계월향을 찾아보면, “조선 중기의 평양 명기. 당시 평안도병마절도사 김응서(金應瑞)의 애첩이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러지기도 한다. 『흑룡일기』와 같은 『임진록』의 이본, 또는 최일영 계열 『임진록』⁴¹⁾ 등에서 계월향은 단지 김응서에게 왜장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칼로 목을 벨 시점을 알려주거나 왜장의 다양한 변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최종적으로 목이 떨어진 왜장에게 채를 뿌리거나 치마를 덮는 등의 방법으로 왜장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임철호, 1986; 2006b: 266).

김응서와 계월향 중 누구의 활약을 부각시키는가의 문제는 계월향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계월향이 죽는다는 설정은 논개와 같다. 논개든 계월향이든 왜장을 죽이지만 그녀들 자신도 죽었다. 자신은 살면서 왜장을 죽이는 여성은 조선시대의 현실/담론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논개의 죽음은 왜장의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며 적어도 기억 속에서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이야기 된다. 하지만 왜장을 안고 스스로 죽은 논개와 달리 여전히 계월향의 죽음은 매우 문제적이다.

계월향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¹⁾ 첫째, 계월향은 원치 않지만, 김응서가 그녀를 죽이는 설정이다. 이 때 그 이유는 “둘 다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에서는 “아녀자로서 영웅을 죽였으니 너를 두면 성사하기 어렵다”라는 모호한 말과 함께 죽이는 경우이다. 그리고 “영웅은 여자 때문에 죽는다” 또는 “첩으로서 남편을 죽였으니 인륜을 저버린 여자를 살려 둘 수 없다”는 등의 설명이 이어진다.

둘째, 계월향이 원해서 김응서가 죽이는 설정이다. 이 때 계월향은 김응서라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을 죽여 달라고 애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가 죽어야 김응서의 공이 온전할 수 있다” 또는 “천한 계집으로서 영웅을 죽였으니 이 몸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계월향의 입을 통해 발화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김응서가 제시한 ‘죽어야 하는 이유’와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

41) 이러한 유형구분은 임철호의 연구(임철호, 1985: 311-318) 참조.

에서는 계월향이 “첩을 살리면 소섭[왜장]의 혼이 소녀를 피어 조선을 해치고자 할 것이니 소녀를 죽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는 “뱃속에 소섭의 아이가 들어 있으니 죽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능우본 <임진록>에서는 계월향[월천]⁴²⁾이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죽여서 배를 가르세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목을 자른 뒤 배를 가르자 뱃속에서 세쌍둥이가 나와 열 걸음을 뛰어다니며 “삼개월만 기다리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최관, 2003: 343).

셋째, 계월향이 자결하는 설정이다. 이 때, 그녀가 설명하는 자결의 이유는 더러워진 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 효, 열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한다. 기녀의 충, 효, 열은 그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계월향에 대한 상상 속에서 그녀는 반드시 ‘그 현장 속에서’ 죽어야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왜장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라는 상징을 통해 설명되었다. 계월향은 왜장의 사랑을 받았고, 어쩌면 왜장과 사랑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왜장과 내통했던 기녀이다. 왜장과 내통한 여성은 ‘더럽고, 음험하고, 부정한’ 적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여성이다. 계월향이 아무리 왜장을 죽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도 ‘의기’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기녀’로서 적과 내통했기 때문이었다.⁴³⁾

42) 임진록 이야기 속에서 계월향은 월선, 월천 등으로 그 이름이 바뀌기도 한다.

43) 권명아는 일제시대 스파이 담론을 분석한 글에서, “여자 스파이란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고, 외국어에 능하고, 외국인과 친숙하게 지내며, 외국의 지식을 습득한 여성들이다. 또 그녀들은 미인이어서 세인의 주목을 받으며, 사교적이고, 성적 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여자 스파이에 대한 담론이 근본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국제적이거나 초국가적인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공포, 근대적 지식과 권력을 지닌 여성에 대한 공포를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권명아, 2005: 214). 또 그는, “여자 스파이란 성적 능력을 통해 남성을 유혹하고 파괴한다. 여기서 남성의 신체에 스며든다는 것이 상징하는 비는 이질적인 것이 사회체로 침투한다는 것이다. 즉 여자 스파이에 대한 공포는 침투 공포와 등가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침투는 단지 침투당한 신체

한편 『흑룡일기』에는 훗날 김응서가 강홍립과 싸우다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그 이야기 뒤에 “김응서가 죽은 것은 평양 기생 계월향을 죽였기 때문에 계월향의 보복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계월향에 대한 다른 방식의 기억이다. 평양의 어떤 사람들에게 계월향은 어떤 억울함, 원한으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 이 이야기 속에서 왜장과 기녀를 모두 죽이고 돌아온 조선의 장수에게 그 기녀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남긴다. “국왕의 은혜를 갚고 가부(家夫)를 위해 죽었으니 그녀를 노류장화(路柳牆花)같이 보면 안 된다.”⁴⁴⁾ 기녀의 자의식이 담긴 말이다. 계월향 이야기를 만들고, 듣고, 퍼뜨린 사람들 중에는 ‘기녀’라고 해서 그녀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에 ‘평양기생’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2. 논개와 ‘어떤 늙은 기생’

국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록된 공식 기억과는 다르게 논개와 관련 하여 민간에 떠다닌 이야기들이 있다. 논개의 이야기는 얼핏 깔끔하게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억의 밑바닥 또는 그 언저리에는 표면의 논개 이야기와는 다른 끈적끈적한 기억의 잔여물, 쓰레기 기억⁴⁵⁾들이 남

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 여자 스파이에 대한 공포는 단지 ‘팜 파탈’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여자 스파이가 침투 공포와 함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재생산의 가능성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즉 여자 스파이들의 성적 개방성은 사회체에 ‘아비 없는 의붓자식’의 재생산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아비 없는 의붓자식’이란 기원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집단과 동의어이다.”(권명아, 2005: 216-217)라고 하여 정체불명의 부정적인 것의 재생산의 문제로 여자스파이에 대한 공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임진왜란의 전쟁 속에서 등장한 미인, 기녀인 계월향과 논개에 대한 ‘공포’를 이해하는데도 잘 들어맞는다.

44) 임철호(1986) 주20) 참조.

45) 알라이다 아스만은 ‘쓰레기’를 ‘음화적 저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재적 기억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였다. 그는 크리스토프 포미안의

아 있다. 국가의 공인을 받기 위해 재조직된 논개의 기억에 포함되지 못한 기억의 부스러기는 논개 이야기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린다. 이 기억들은 논개를 조선후기 ‘충’의 상징, 의기로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아니 반드시 은폐되었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억의 흔적은 왜적에게 패한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패배의 계기를 제공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 있다.

관운장계열 『임진록』에는 진주성이 함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한 여인이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왜장 석종로가 진주성을 공격했는데 한 달이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성이 함락되지 않자, 성 안에 물을 끌어넣었다.⁴⁶⁾ 그리고 초인[폴로 만든 가짜 사람]을 만들어 성안으로 넣었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았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 박수를 치며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왜병들이 성안에 들어왔다’고 하자 군사들이 크게 놀라 스스로 성 아래 강물로 떨어졌다(임철호, 1985: 204). 여자의 말 때문에 성이 함락되었던 것이다.⁴⁷⁾ 이 이야기에서 여자의 정체는 불분명하고, 소리친 동기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정체모를 여인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 왜병의 공격을 도와주거나, 조선군의 패배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

이 이야기는 『재조변방지』 속에 등장하는 다음의 사실 기록과 교묘하게

연구를 빌어서, “쓰레기가 어떤 사물의 변천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꼭 최종 단계일 필요는 없으며 그저 어떤 대상이 이용가치를 잃어버린 탈기능화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가 다시 가져오고 싶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가져올 수 없는 많은 것들, 끝없이 남아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라지지 않는 잔재’를 ‘쓰레기’로 논의하였다(알라이다 아스만, 1998, P. 27).

46)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성안에 물을 끌어넣은 것과 관련하여 진주성 싸움 때 비가 많이 내려 성이 허물어졌다는 기록이 『재조변방지』 권3에 전하고 있다.

47) 이와 유사하게 ‘여성’이 전쟁을 패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두타산성에서 왜병들과 대전하고 있을 때, 의병(擬兵: 병사를 본떠서 만든 것)들을 많이 세워 강성함을 보이자 왜병들이 두려워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때 마귀할멈이 나타나 왜병들에게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의병들이 크게 패했다는 이야기도 구비설화 속에도 전해지고 있다(임철호, 1985: 205).

연결된다. “진주성 전투 때, 도적(왜군)이 성 안에다 불을 던져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성안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 때, 서예원(진주 목사)은 겁에 질려 당황하여 명령 체계가 뒤집어졌고, 김천일(의병 장군)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자 어떤 늙은 기생이 조용히 장군의 부하에게 말하기를, ‘앞날 김목사(김시민)께서 이 성을 지킬 때는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협력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의 형세를 살피건대 앞날과는 아주 판판이니 우리들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김천일이 이를 듣고 민심을 현혹시키는 요망한 말이라 하여 그 기생을 목 베었다.”⁴⁸⁾

또 다른 기록 속에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늙은 기생’이 ‘논개’로 등장한다. 『대동기문』⁴⁹⁾ 속에서는 김천일에게 군대가 제대로 통솔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하는 기생이 ‘논개’로 설정되어 있다.⁵⁰⁾ 김천일이 ‘요망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논개를 죽이려 했으나 주위에서 말려서 그만두었는데, 그 뒤에 성이 함락되어 군사와 백성이 모두 죽게 되자 논개가 적장을 안고 투신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서 발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주성의 패배를 예언하여 남성 의병장의 심기를 건드린 기생 논개의 이야기가 또 다른 기억 속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진주성 안에 있었던 ‘한 여자’와 ‘늙은 기생’, ‘논개’는 모두 ‘말’을 함으로써 적에게 도움을 주었다. 진주의 양반들과 관원들이 만들어낸 ‘의기 논개’ 이야기 속에는 들어 있지 않은 또 다른 파편적 기억 속에 전해

48) 申晸, 『再造藩邦志』

49) 『대동기문』은 강효석이 편집하여 1925년에 한양서원(漢陽書院)에서 출간된 것으로 조선시대의 인물들에 얽힌 일화를 모은 것이다. 논개에 대한 이야기는 『대동기문』 권2 51장에 들어 있다.

50) 이에 근거한 이야기가 1930년대 김동인의 소설 “논개의 환생” 속에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창지사 김천일이 논개의 당돌한 반대를 괘씸하게 보고 목을 베려 했다가 그녀가 서예원의 애첩이라는 점 때문에 죽이지 않고 진주성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묘사되었다(김동인, “논개의 환생”, 『동광』 제33호, 1932년 5월 1일).

다른 논개가 있는 것일까. 왜적을 도운 한 여자, 기생은 논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논개에 대한 기억은 그다지 말끔하지 않다. 진주성이 패한 뒤에 왜장을 안고 죽은 논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진주성에서 지휘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던 남성 장군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논개가 있다. 남성 장군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민심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은 왜적에게 도움을 주어, 진주성이 함락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전쟁 속에서 언제나 의심스러운 시선의 대상이 된 기녀들은 왜적과 내통할 가능성, ‘충’과 ‘배신’ 사이의 어느 경계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일까. 김응서에게 “내가 살면, 왜적의 혼이 씌워 조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호소하며 죽여주기를 청하는 계월향의 대사는 알 수 없는 여성, 남편도 주인도 없는 기녀에 대한 민간의 두려움을 담고 있는 것이다. 논개와 계월향은 알 수 없는 그녀들이고, 그러하기에 두려운 존재이다.

V. 맺음말

전통시대의 한 여성에 대한 공식기억이 만들어진 방식은 무엇이고, 그것은 누구의 이해를 위해 작동하며, 어떻게 해체될 수 있을까. 한 사회의 공식 기억 속에, 지배이념의 구현자로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전혀 다른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선시대에 임진왜란·병자호란 양란이 지난 뒤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논개’라는 기녀를 통해 여성과 ‘충’이 결합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된 점을 드러냈다. 이에 조선후기 사회에서 성별과 섹슈얼리티의 위계가 ‘열’ 또는 ‘충’과 같은 유교적 가치관과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합쳐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것은 누구이며, 어떤 의도에서 진행된 것인지 알아보았다. 논개를 의기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경상도, 진주 지역의 남성 양반 지식인들이었다. 하지만 논개가

국가로부터 의기로 인정받은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개를 기념해온 진주 기생들의 ‘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셋째,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기억의 위계’를 살펴보았다. 논개를 조선 국가의 의기로 재탄생하는 동안 ‘계월향’은 평양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고 ‘의기’로 인정받지 못했다. 계월향과 논개의 차이는 ‘적과의 내통’에 대한 혐의 정도에 달려 있었다. 계월향이 김응서를 도와 왜장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왜장의 총애를 받아 적진의 내부 사정에 정통했기에 가능했지만, ‘왜’와의 내통 경력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논개를 최경희의 애첩으로, 계월향을 김응서의 애첩으로 보려는 경향은 그녀들이 가진 ‘왜’와의 내통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넷째, 논개에 대한 공식기억의 너머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부스러기’를 찾아보았다. 진주성을 혼란에 빠뜨려 패배를 가져온 인물로 ‘늙은 기생’이 등장하는데, 문헌설화 속에는 그 늙은 기생의 이름이 ‘논개’로 등장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18세기 이후에 임진왜란 때 죽은 논개는 ‘의기’로 재탄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유교적 젠더 관계 속에서 ‘열’의 주체만이 될 수 있었던 여성은 처음으로 ‘충’의 주체로 호명될 수 있었다. 그녀를 ‘열’로 인정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 결국 ‘충’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논개는 국가와 여성 사이의 관계, 국가가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결과이자 계기였다.

여성이 남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시의 사회가 여성에 대해 상상하는 외연이 확장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남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충’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여성에게 ‘충’을 할당한 것은 여성을 국가와 직접 연결, 국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조선시대에 ‘부녀’가 아닌 ‘기녀’에게만 한정되는 것이었다. 기녀를 ‘의기’로 만들고 ‘충’의 주체로 만드는 것은 그녀들에게 부착된 ‘불온하고 위험한’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통해 가능했고, 또 그것을 지우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

도 했다. 기녀를 ‘충’의 주체로 호명하는 것은 그녀의 존재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인정의 댓가는 국가에 대한 철저한 충성이었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18세기 이후에 하층 신분의 여성에게까지 열절이 강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녀에게 ‘열’이 아닌 ‘충’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기녀 논개를 둘러싼 공식 기억을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다. 기녀를 ‘충’의 주체로 포섭하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충’으로 수렴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임진왜란 때 왜장을 죽이는 공로를 세웠으면서도 계월향은 조선 국가로부터 ‘의기’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땅히 죽어야 했다’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왜장의 사랑을 받아 적진에서 살았던 미심쩍은 계월향을 배제하고, 동시에 논개에 대한 다른 흔적을 삭제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논개, 그리고 계월향은 어떤 기생이었을까. 그녀들은 정말 사랑 또는 열절, 아니면 충절을 위해 살고 죽었을까. 그녀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그 사정을 들을 길은 없고, 그녀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왜장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계월향과 논개의 삶과 죽음에서 삭제된 이야기는 무엇일까. 어쩌면 논개는 정말 왜적을 미워하여 그 중 한명을 끌어안고 죽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주성을 패퇴시킨 왜군들의 향연에 어쩔 수 없이 불려나갔다가 의암이라고 불리는 남강의 작은 바위 위에서 실족사한 기녀일 수도 있고, 왜장 누군가와 스치듯 어떤 관계를 가졌던 기녀일 수도 있다. 그 중 몇 가지, 또는 그 모두가 그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녀는 진주성이라는 왜와 조선이 맞부딪히는 경계 위에서 기녀라는 신분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중스파이였을 수도 있다. 민족을 구한 전통 천한 신분의 여인, 논개와 계월향에 대한 기억을 흘뜨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부장제 국가가 여성을 호명하고 동원한 방식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실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참 고 문 헌

『大東奇聞』

『東國新續三綱行實圖』

『明庵集』

『備邊司謄錄』

『於于野談』

『與猶堂全書』

『練藜室記述』

『壬辰錄』

『再造藩邦志』

『楓巖輯話』

『湖南節義錄』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1996), 『논개사적연구』, 부산: 신지서원.

권명아(2005),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서울: 책세상.

김수업(2001), 『논개』, 서울: 지식산업사.

김영범(1999), “알박스 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연구』, 6(3), 557-594쪽.

김혁(2001),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구성과 편찬과정”, 한국서지학회(편), 『계간 서지학보』, 제 25집, 103-124쪽.

노영구(2004), “공신선정과 전쟁평가를 통한 임진왜란 기억의 형성”, 한국역사연구회(편), 『역사와 현실』, 제 51집, 11-35쪽.

박기용(2004),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학회(편), 『우리말글』, 제 32집, 169-214쪽.

박주(1992),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의 분석”,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편), 『여성문제연구』, 제 20집, 83-104쪽.

알라이다 아스만 지음(1999), 『기억의 공간』,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옮김,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오병무 외(1997), 『논개의 생애와 충절』, 전라북도: 장수문화원.
- 임철호(1985), 『임진록연구』, 서울: 정음사.
- 임철호(1986), “계월향 이야기의 변이와 의미”,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편), 『모악어문학』, 제 1권, 49-60쪽.
- 임철호(2005), “흑룡일기연구(1)”, 한국언어문학회(편), 『한국언어문학』, 제 55집, 245-274쪽.
- 임철호(2006a), “흑룡일기연구(2)”, 한국언어문학회(편), 『한국언어문학』, 제57집, 243-270쪽.
- 임철호(2006b), “흑룡일기연구(3)”, 한국언어문학회(편), 『한국언어문학』, 제 59집, 263-287쪽.
-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 정동주(1997), “진주성 전투와 논개”,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편), 『남명학연구』, 제 7권, 71-102쪽.
- 정지영(2006), “국가재건과 여성 섹슈얼리티의 동원: 한국전쟁 후 ‘논개’에 대한 상상과 전유”,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 주최 <임진왜란: 조일전쟁에서 동아시아 삼국전쟁으로>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06. 6. 20-22)
- 최관(2003), 『일본과 임진왜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코우노 켄스케(1999), “국어 교과서 속의 내셔널 히스토리”, 코모리 요우이치 · 타카하시 테츠야 엮음, 이규수 옮김,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서울: 삼인.
- 한규무(2005), “조선시대 여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편), 『인간연구』, 제 9호.
- 피에르 노라,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김인중 번역, 한국서양사학회(편), 『서양사론』, 제87호, 2005, 285-318쪽(Pierre Nora,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emoire”, *Representations* 26, Spring 1989, pp. 7-25).
- 富山一郎(도미야마 이치로)編, 記憶が語りはじめ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6.

해리 하르투니언 지음, 『역사의 요동』, 윤영실 · 서정은 옮김, 서울: 휴머니스트, 2006(Harry Harootunian, *History's Disquiet: Modernity Cultural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Everyday Lif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Haboush, JaHyun Kim(1999), "Constructing the Center: The Ritual Controversy and the Search for a New Identity in Seventeenth-Century Korea",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o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Re-remembering the “Deaths of Nongae and
Gyeŏlhyang”: The Invention of “loyal gisaeng” in Choson and
the Excluded Memories

Jung, Ji-Young

(Dep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Nongae and Gyeŏlhyang are remembered as *gisaengs*(妓生) who killed the enemy commander during the Imjin War in 16th century. Nongae is known to have thrown herself into Nam River in Jinju holding the enemy commander after the battle of Jinju Fortress was lost. Gyeŏlhyang is known to have helped Kim Eung-seo kill the enemy’s general who loved her. The local memories of Nongae in Jinju area were made into “the official state memory of Nongae, the loyal *gisaeng*, who died for her country” in the late Chosŏn. On the other hand, Choson did not name Gyeŏlhyang as “the loyal *gisaeng*.” Although both Nongae and Gyeŏlhyang are *gisaengs* who killed the enemy commander during war, the ways in which each of them is remembered are subtly different.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possibility of their “collusion with the enemy.” Nongae, whose possibility of collusion has been excluded in the memory-weaving process, functions as the role model for women; she devoted herself to her country and embodied the gender norms. This study examines the official memories of Nongae and Gyeŏlhyang who died during war 400 years ago, the process in which their official memory was constructed, and other various memories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official one. By “re-remembering” the two *gisaengs*, this

study raises questions about what has been believed to be the absolute truth, dismantles the queer coupling of *gisaeng* and loyalty, and generates different imaginations of them independent of the male gaze.

keywords: Nongae, Kyewolhyang, the late Chosun, war, sexuality, official memory, collective memory, fragments of memory, collusion with the enemy